

‘신종플루 공포’ 독감 예방접종 급증

병원 유아·노인들 ‘복적’ ... 백신값 80%까지 올라도 부족사태

13개월 된 딸과 4살짜리 아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진찰실을 빠져 나오는 박신화(여·29·광주시 남구 주월동)씨의 표정은 밝았다. 박씨는 “신종플루 때문에 독감백신마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운 좋게 자녀들에게 예방접종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구는 물론 여기 저기서 독감 예방접종하러 오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오전 10시께 광주 기독병원 2층 소아과. 이른 오전부터 접수창구 대기실 의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병원 소아과에는 돌을 막 지난 유아부터 60~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독감예방접종을 맞거나 기침과 고열로 인해 진찰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복적였다. 4~5평 되는 예방접종실에는 자녀를 업고 가는 주부나 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불안해요” 8일 광주 기독병원 2층 소아과 접수 대기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온 어린이와 부모들로 크게 붐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독병원에서 따르면 지난 2일이 병원에 올해 처음 공급된 400개의 독감백신은 불과 2~3일도 안돼 동났으며 7일 추가로 들어온 400개의 백신도 9일에는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병원에 따르면 15일이나 독감백신 400개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병원측은 지난해보다 3주가량 일찍 독감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독감백신 공급 부족으로 밀려드는 환자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독감백신이 들어오면 2~3일만에 소진되는 바람

에 그 뒤 3~5일은 접종이 불가능하다. 환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에 큰 무리가 없었던 예년과는 달리 신종플루의 공포로 인해 독감백신이라도 찾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간호사 김경희씨는 “우리 같은 대형병원도 신종플루 여파로 독감백신을 구하기 어렵다”며 “제철 독감백신 도매업체도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생후 3개월을 기준으로 0.25cc와

0.5cc 분량으로 나누는 독감백신을 맞는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각각 2만5천원과 3만원. 백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지난해보다 50~80%까지 폭 등등해서 불안의 목소리는 거의 없다. 접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얘기도 있다.

독감백신 도매업체인 광주 S약품 관계자는 “수요는 늘고 있는데 독감백신 공급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해보다 많게는 80%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여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지만 독감 예방접종과 신종플루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진 게 없다.

기독병원 소아과 의사 신현욱씨는 “신종플루 예방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환절기를 맞아 독감예방 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종플루로 수능 연기’ 피담 난무

수험생 혼란 ... 정부 “연기·중단은 없다”

수능능력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3 수험생들 사이에 ‘수능 연기 및 중단’이라는 여측성 괴담이 떠도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각종 수험정보사이트와 인터넷카페 등에는 ‘수능 연기 검토설’, ‘수능반면 검열시 수능중단설’ 등 수능 관련 여측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수험생 대부분은 이 같은 글을 믿지 않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수생이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모

인터넷 수험정보 카페 게시판에 “수능 연기는 말도 안된다. 만약 (수능)연기가 검토된다면 각종 언론 매체에 도배가 됐을 것”이라며 “수능 당일까지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고민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 고3 수험생은 “신종 플루가 대 확산된다면 수능을 보고 싶어도 못보게 된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수능 연기는 불가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능 연기설’을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종플루 치사율

이나 확산 속도 등을 볼 때 수능연기 등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권준욱 중앙인플루엔자대응본부 홍보담당관은 “전문가들은 신종플루 치사율을 일반 계절독감 수준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1천만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만명 사망”이나 ‘수능 연기’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당국도 신종플루에 감염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고사장을 마련해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심청·아리랑축제 취소

신종플루 감염 우려에 따라 곡성군 심청축제와 진도군 아리랑축제 가 취소됐다.

곡성군은 8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24일 열 예정이던 제9회 ‘곡성심청축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12일 열린 ‘제8회 겸면 목화축제’를 비롯해 석곡면 코스모스 음악회와 섬진강마라톤대회, 구곡순담 100살잔치, 곡성전문대 과학축전 등 주요 축제도 모두 취소됐다.

진도군도 다음 달로 예정된 ‘2009 진도 아리랑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기로 했던 아리랑 축제를 강행할 수 없다.

/동부취재본부 김계종기자 kjkim@

“사기도박 ‘대박’ 노렸는데...”

조폭들, 1천만원에 구입한 프로그램

수익 신통치 않자 판매자 납치·감금

인터넷 사기도박 프로그램이 신통치 않자 판매자를 납치·감금한 뒤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K과 행동대원 김모(30)씨 등 5명은 지난 2월 초 자신의 소개로 프로그램 개발자 최모(28)씨로부터 인터넷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1천만 원에 샀다.

인터넷 도박에서 상대방 패를 읽어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개설,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돈을 벌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허환된 꿈에 불과했다. 구입한 사기도박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화가 난 이들은 구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씨를 납치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2일 밤 11시께 목포시 신흥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최씨를 유인해 만난 뒤 자신이 타고온 승용차에 태워 서울로 향했다.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온 이들은 최씨에게 1천만 원을 요구했고, 최씨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김씨에게 700만 원을 줬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사기를 친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목포경찰은 8일 김씨 등 5명을 특수감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나원침 (7898)



신혼부부 여행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1년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8일 신혼여행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시 북구 모 여행사에서 A(31)씨와 여행 상품을 계약한 뒤 416만 원을 송금받는 등 39명으로부터 해외여행비 1억5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건 처리 불만 흉기로 경찰 찔러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결국 경찰서행.

○영광경찰은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4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이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께 영광군 백수읍에서 112에 허위 신고해 출동한 조모(50) 경위를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치자 함께 있던 박모(38) 경찰의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

○이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주차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 끝에 음주운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결국 쇠고랑.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고속도로 20대 女 살해

용의자 택시기사 검거

성폭행 뒤 사체 유기

고속도로변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은 8일 택시기사 장모(40)씨를 살해 용의자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20대 여성의 신원이 목포에 거주하는 이모(27)씨로 확인하고 주변인 조사와 CCTV 등을 검색해 유력한 용의자로 장씨를 검거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경찰은 택시기사인 장씨가 지난 2일 새벽 귀가하던 이씨를 태우고 가던 중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서해안고속도로 도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씨가 지난 1일 직장에서 퇴근한 후 귀가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상품권 등 17억 횡령 백화점 직원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8일 회사 공금과 상품권 등 가액을 가로챈 달아난 광주 모 백화점 직원 장모(36)씨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A백화점 법인 영업팀에서 상품권 관측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장씨는 지난 2일 12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공금 5억 6천500만원 등 총 17억6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장씨는 공금을 횡령한 후 잡적했거나 회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백화점 측은 장씨로부터 상품권을 회수하고 현금 대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범행 공모 여부와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고장수기 할인판매
이 상품은 기회입니다!
8만원~11만원
모든 장수기 할매급한

동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062) 363-4800
수정배터리, 고압배터리, 배터리, 장수기, 수동장수기, 자동장수기, 고압장수기, 고압배터리, 고압장수기